

2022-12 소그룹(출판용)

김진우 목사 (Jinwoo Kim,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Metropolitan Koryo UMC, NY)

12 월 첫째 주

제목: 광야의 목소리

본문: 마태복음 3:1-12

찬송가 : 새 391 장 오 놀라운 구세주

새 425 장(통 217 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광야를 지나며

여는 질문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목소리(내 마음에 있는 솔직함)를 듣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서로 경험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하고 싶은 말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마태는 예수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당연한 듯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받는 자리에 나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른 냉철한 심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12 월의 첫날을 시작하셨나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때론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방향을 잃은 듯한 광야 같은 삶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다시한번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맺으라고 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8 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가면서 꾸준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 욕망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내 삶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등 우리들에게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죄성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삶 속으로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가 있다면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삶 속에서 광야에 서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내 삶에 방향이 되어준 말씀이나 부모님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

마태복음 3: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녀와의 나눔

아이들에게 혹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엄마 아빠에게도 물어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아이들에게 혹시 아빠 엄마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 때 마음이 어땠는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 감정이 있었는데 표현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지?
등 아이들의 마음을 듣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12 월 둘째 주

제목: 협력하는 믿음의 실천

본문: 마태복음 9:1-8

찬송가 : 새 543 장(통 342 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357 장(통 397 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으로 서리라

여는 질문 어려움에 있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나 내가 도움이 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눠주세요.

[누군가를 돕는 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에는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바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에는 아픈 친구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들은 친구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친구들의 믿음에는 행동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소망 믿음의 실천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군중들로 둘러 쌓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로 지분을 뚫어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가는 창의적인 길을 열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친구들은 서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하나된 마음과 믿음의 협력인지 모릅니다. 중풍병의 현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이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2 절)

삶 속으로

가족들과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 청년들과 믿음의 친구들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가운데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가지 실천을 정해 팀 모임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홈리스를 찾아가 돕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이웃들에게 커피와 빵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 근처 상점들 앞을 아무말 없이 청소하기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암송 구절

마태복음 9: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녀와의 나눔

혼자 했을 때보다 친구와 같이 할 때 더 재밌고 좋았던 게임이나 활동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12 월 셋째 주

제목: 용서의 다리

본문: 마태복음 18:21-35

찬송가 : 새 363 장(통 479) 내가 깊은 곳에서

새 282 장(통 339 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는 질문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처럼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다 용서받지 못한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그룹이 되길 기도합니다.]

본문 속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통과해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조지 허버트 George Herbert)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용서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의 말대로 용서는 내가 통과해야 할 다리이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신비해서 미움과 증오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릴 놓아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죽을 죄를 지은 것 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다리에서 용서 받은 우리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말씀 속으로

베드로가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줘야 합니까란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나요? (22 절)

[우리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은커녕 한번도 제대로 용서를 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몇번을 용서해라 횃수를 세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은 다르지 않은 같은 방향임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멈추는 길이 용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면 사백구십번을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35 절)

[다니엘서 9 장 24 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한 후 응답을 듣습니다. 칠년 씩 일흔 번이 걸린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49 년.. 고대의 희년 법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몸소 행하신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삶 속으로

특히 어떤 때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힘드나요?

암송 구절

마태복음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녀와의 나눔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만약 직접 말로 하기 힘들다면 용서 노트를 적어봅시다.

12 월 넷째 주

제목: 긍휼의 마음

본문: 마태복음 20:1-16

찬송가 : 새 310 장(통 4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197 장(통 178 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로다

여는 질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축구를 좋아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바라는 것은 전후반 90 분을 다 소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라 해도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데 감독이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합니다. 선수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빼는 것은 포지션을 정하는 일은 선수의 일이 아니라 감독의 일인 것입니다. 감독이 경기가 끝나기 5 분을 남기고 핵심 선수를 빼고 그동안 선발의 기회가 없었던 신인 선수를 투입합니다. 교체 되어 이제 막 들어간 선수가 기회를 얻어 결승골을 넣어 팀이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인가요? 당연히 팀 전체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때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서로 나누며 여전히 오늘도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본문 속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뉴욕 플러싱에 가면 일일노동자들이 모여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와서 필요한 일꾼 수 만큼 차에 태워서 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바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 비유 제목을 ‘궁핍히 여기는 고용주 비유’라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초점이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주가 보여준 놀라운 궁핍과 은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탕부 하나님이라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자신은 일꾼들에게 일을 주고 그늘에서 쉬어도 되지만 시간마다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직접 데려올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루 가족들을 부양할 일당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보다 기회를 받지 못해 장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일당은 커녕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도 몸도 불편할 일꾼이 마음에 더 걸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대답은 나도 당신처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꾼들에게 궁핍을 베풀려고 하루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주었고 내가 내 돈으로 다른 일꾼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왜 당신이 인색하오?” 정의는 자비도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말씀 속으로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은 품삯을 받고 왜 불평했나요? (12 절)

주인은 자신은 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나요? (13-15 절)

삶 속으로

직장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여러분이 만약 고용주라면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루 일당을 지급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듯이 내가 오히려 다른 교우들에게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인색하게 생각했거나 대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암송 구절

마태복음 20: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녀와의 나눔

길에서 마주하는 홈리스를 볼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자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